제14강 학생의 자기 고백
-학생 작품 평가

(1교시)

아이의 걸음

김민선

시간을 잃어버린 아이가 문방구 앞에 놓여있는
오락기 앞에서 서성인다

친구들은 히히덕 거리며 주머니 사이로 시간을 흘리는데
아이는 눈치 빠르게 작은 손을 더듬거린다
'집에 가자' 친구들은 전봇대 뒤로 숨어버린
시간을 잊어버리고는
뛰어간다

울상이 되어버린 아이는 혼자 울면서 시간을 찾는다

전봇대 뒤에 숨어버린 시간이
땅거미 내리는 나무 뒤에 그림자가
아이를 보며 웃는다

보름달

박소라

늦은 밤
둥근 구멍에서
빛이 쏟아진다

마침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다른 세계로 향하는 출구가
활짝 열렸다

별빛을 따라
출구로 향한다

바짝 오그라든 마음,
출구로 가는 길
숨이 가쁘다

그러나
뿌연 여명에
출구는 슬며시 자취를 감추고

나는 망연히
달빛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다

파포스

조예림

망가져 깜박거리는 여자는 자신의 밑구멍이 망가졌다고
사회의 더러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밤거리를 맴도는 모습
가로등 불빛은 끝이 안보인체로 꼬리를 물고
가로등 아래로는
미혼모로 보이는 여자가
죽은 태아의 모습처럼 정지한 채
가로등을 보며 흐느낀다
벌려진 다리 아래로,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
여자는 눈을 감는다

미혼모 주변에는 알코올냄새 소독 냄새가 은은히 풍기는데
잉크가 번져 알아보지 못하게 된 처방전,
그녀의 손에 힘겹게 쥐어져 있다

빗방울 아스팔트 위에서 뜨겁게 끓어가고 있을 때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젊은 여자, 병원으로 돌아가고
힘없이 풀린 눈동자는 조금씩 눈이 감긴다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간호사의 손에 쥐어진
솜이 그녀의 다리 밑을 적실 때,
여자는 차가움에 입술을 깨물고,

간호사는 긴 손톱으로
여자의 다리를 쿡 찌르며 입을 연다

이상한 일이죠?
아프로티테가 정부와 불륜을 맺고 들켜
헤파이스토에게 들키자
아프로티테는 곧바로 키프로스 성의
파포스 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처녀가 되어 돌아왔다고……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바람과 함께 그녀의 귓가를 맴돈다

파포스……
여자는 여태껏 파포스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구두닦이는 구두를 신고 퇴근하지 않는다.’

홍희진

1.
‘구두’와 ‘수선’사이에 구두닦는 사내가 있지 12시 조계종 뒷문으로 고고한 자태의 고무신걸음 사뿐, 초밥 잘 한다는 ‘鶴’으로 나긋이 들어가는 뒷모습에 사내는 그만 마른입술 쿨럭. 이만오천원에 아홉알 나오는 초밥메뉴판이 구두닦는 사내가 점심을 시키는 래래(來來)향 중화반점 메뉴판과 나란히 누워 사내를 보고 있지

2.
구두 물광 내는데 이천원 손에 쥔 이천원이 사내의 색시가 되고 아이가 되지 구두 닦는데엔 ‘말표구두약’이 최고라는 사내, 승무의 하얀 사 너풀거리듯 검은 구두를 자리삼아 한바탕 놀이를 하지. 먹먹해진 구두가 졸린 듯 꿈벅하면 ‘부르스터’를 ‘탁’. 몸이 오르고, 눈이 어르면 사내는 구두를 아이삼아 물을 먹이고 이젠 그만 됐다고 어루만지지. 검댕이 묻은 이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원. 갈라진 손등은 날개가 되고, 사내는 학이 되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